



보도시점 2025. 2. 28.(금) 15:30 배포 2025. 2. 28.(금) 14:10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4.8조원 규모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최상목 권한대행, 물가·일자리·건설 이어 서민금융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 '25년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상반기 중 60% 내외 조기 집행 추진
- 제도개선 등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이 전년대비 3.8조원 확대 되도록 뒷받침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8(금) 14:00,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일선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금융 관련 기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 <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25.2.28.(금) 14:00~15:0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참석자: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중기부 차관 (관계기관·전문가) 금감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은행연합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KDI 선임 연구위원,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①4.8조원 규모(정책1조원+ 민간3.8조원)의 서민금융 추가 공급, ②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

【별첨 2】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임흥기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정현엽 (potear02@korea.kr)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팀 장 강창기 (044-215-2861)
		담당자	사무관 정재현 (smileday79@korea.kr)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이소민 (sominy1024@korea.kr)
		담당자	사무관 강준모 (junemarry@korea.kr)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정지혜 (blithe@korea.kr)
	금융산업국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이진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김경호 (guardkim@korea.kr)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조성우 (044-204-7520)
		담당자	사무관 공인식 (trustkis@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